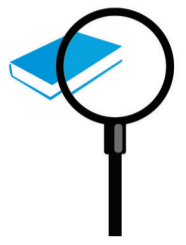


인삼, 약초 넘어 역사에 깊이 뿌리내린 '문화 담지자'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작지만 큰 한국사, 인삼

이철성 지음

다음은 무엇을 말할까? 장승업의 '기명절지도', 그리고 산신도 등에 여러 사물과 함께 등장한다. 인간의 부귀와 장수를 상징한다.

또 있다. 이것은 귀한 선물로도 쓰인다. 집안의 어른에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벗에게, 가족의 부양을 위해 애쓰는 남편을 위해 부인이 건네는 마음의 선물로 제적이다. 어떤 이는 고마운 분들에게 건강 식품으로 드리기도 한다.

바로 인삼이다. 그러나 한가지 궁금한 게 있다. 우리의 산신도에 등장하는 인삼은 산삼일까, 라는 점이다. 대체로 산신의 손에 들린 인삼은 '밭에서 건강하게 자란' 인삼의 모양이다. 일반적인 '가늘고 단단한' 산삼의 모습은 아니다.

"원래 인삼은 산삼뿐이었다. 인삼이 밭에서 갖 배될 때만 해도 그것은 가삼(家參)이었다. 하지만 가삼은 곧 인삼의 지위에 올랐고, 인삼은 산삼이라



불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가삼을 짜 만든 홍삼이 인삼과 동일한 위치에 올랐다. 홍삼은 1797년(정조 21)부터 조선의 공식 무역상품이 되었다."

건양대 총장을 역임했던 이철성 한국사학자의 말이다. 근대 경제사 분야의 저서와 논문을 써온 그는 최근에는 인삼의 고장인 개성, 금산 등지의 자료수집과 연구에 몰두한다.

이 박사가 펴낸 '작지만 큰 한국사, 인삼'은 '인삼'을 모티브로 풀어나간 시시콜콜한 한국사 이야기이다. 모두 37개의 꼭지로 조명한 인삼의 역사와 문화에는 단순한 약초를 넘어 우리 역사에 깊이 뿌리내린 '문화의 담지자' 인삼을 다각도로 들여다본다.

'고려인삼'은 신비한 양약이라는 이미지가 결합된 한국 인삼의 대명사다. 제품도 다양한데 "옛 고려 왕조의 인삼이 생산되었던 조선산 가삼을 재료를 만든 홍삼·백삼·홍삼장·인삼엑기스·인삼 드링크" 등을 포괄한다.

사실 한국인에게 인삼은 각별한 의미를 준다. 저자에 따르면 인삼 재배는 대략 17세기 중엽부터 18세기 중엽까지 자연산 산삼이 절종 위기에 처하는 시기에 시작됐다. 이후 전국으로 재배가 확대됐다고 본다.

영조의 사랑이 남달랐던 건강당의 주인공 인삼은 산삼이었다. 정조가 화성을 일으킬 재원으로 주

목했던 인삼은 홍삼이었다. 당시 서울에서 이주하는 부자들에게 가삼 무역의 독점권을 주려했던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저자는 광해군에서 경종 시기에 걸쳐 한국과 중국, 일본을 잇는 인삼로드를 매개로 변역을 견인했던 주인공은 다름아닌 산삼이었다고 본다.

역사적으로 6세기경 백제 인삼은 최고의 약재였다. 12세기 고려를 방문한 송나라 사신 서긍은 고려인삼을 소개할 만큼 인삼은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집약하는 키워드다. 그뿐인가. 대원군의 부국강병을 비롯해 고종의 광무개혁,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 도약과 변화를 위한 든든한 자원 가운데 하나였다.

저자는 고려인삼을 매개로 "한희와 나눔, 조화와 상생의 문화"를 읽어내기도 한다. 삼마니의 "삼됐다!"라는 외침과 연계된 장면들이 그렇다. 산삼을 발견한 이가 외치는 "삼됐다!"는 기쁨의 분출이지만 그러나 삼마니는 산삼을 캐고 단 뒤 동행한 이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나눠준다. 다시 말해 "소망 보시오!"라는 외침은 나눔과 조화를 상징한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고려인삼은 모든 약초의 으뜸이었지만 '독불장군'이 아니라 다른 약재와 함께 '섞여야' 더욱 빛을 발했다. 인삼이 한나라 유방의 신하 소하(蕭何)에 비유되고, 대왕이 범려와 한신(韓信)에 감초가 사마광(司馬光)에 비유되었던 것은 고려 인삼 등용의 깨우침을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한다.

사실 인삼은 스스로 이름을 붙인 적이 없다. 다만

사람의 모양을 닮아 인삼(人參)일 뿐이며 "얼마나 닮았느냐가 품질을 가르는 기준"이 됐다. "오래되고 잘생긴 산삼은 동자로 변신해 인간에게 이로움을 주는 존재"로 여겨졌다는 것이다.

<푸른역사·2만2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나의 마지막 엄마

아사다 지로 지음, 이선희 옮김

하나 있던 가족 어머니마저 잃어버린 여의사와 독신으로 살면서 성공했지만 삶이 허허해지기 시작한 노년의 직장인, 은퇴하고 나서 환혼이혼을 당한 남자 등...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웃들의 모습이기도 하다.

지난 2022년 기준 한국의 30대 미혼인구 비중은 42.5%에 이른다. 거의 절반에 육박할 만큼 결혼 기피 풍조가 만연해 있다. 연애와 결혼, 출산으로 이어지는 고리가 상당부분 끊긴 오래다.

제목부터 눈길을 끄는 '나의 마지막 엄마'라는 소설은 현실에 지친 중장년층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도시에서 태어나 성실하게 살아온 중장년층의 삶은 그렇게 새로운 것도 그렇다고 낯선 서사도 아니다.

작가인 아사다 지로는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소설가다. 영화 '파이란'과 '철도원'의 원작자인 그는 이번에도 내면을 건드리는 작품으로 감동을 선사한다. 소설은 출간 즉시 일본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를 만큼 주목을 받았다.

소설의 시작은 아름다운 경치를 배경으로 펼쳐진다. 낡은 시골집 한 채이지만 이곳에서 1박 2일 머무르는 숙박값이 무려 500만 원이다. 시골집에는 키가 작은 애뜻한 엄마가 있다. 물론 실제 엄마는 아니다. 소수의 VIP들만을 위해 카드 회사에서 마련한 특별한 휴가 이벤트다. 이곳을 찾는 이들은 누구이며 그들을 맞이하는 이는 누구일까.

휴가 기획은 고향을 모르는 도시인들에게 귀환의 기쁨을 안겨주기 위해 마련됐다. 누구에게도 힘들다고 말할 수 없는 어른들은 비로소 가짜 엄마와 가짜 고향에게서 위로 받는다.

<다산책방·1만75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문장의 비결

정희모 지음

많은 이들이 글쓰기에 어려움을 느낀다. 좋은 문장을 쓰고 싶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 좋은 글을 쓴다는 것은 그만큼 적은 공력을 필요로 한다. 어느 날 갑자기 글을 잘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

글쓰기는 말공부와 유사한 면이 있다. 어린아이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말문이 트이는 것처럼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자물해야 할 것들이 있다. 흔히 말하는 3다(多), 많이 읽고 쓰고 상상하는 것은 기본이다. 또한 여기에 많이 경험하고 보고 듣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그런 것들이 모두 융합되고 모여지다 보면 자연스레 글을 쓰고 싶어진다.

그렇다면 정말 글쓰기는 어렵고 도맡하기 어려운 일일까. 정희모 연세대 국문과 교수가 펴낸 '문장의 비결'은 글쓰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위한 책이다. 좋은 문장을 어떻게 쓸 것인지, 구조적으로 디테일이 살아 있는 문장을 어떻게 쓸 것인지 등을 조인한다. 저자는 10여 년 전 동료 이재성 교수와 '글쓰기 전략'을 집필한 바 있다. 당시의 책이 쓰기 전반에 관한 총론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책은 글을 이루는 요소인 문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좋은 문장 단단한 글을 쓰는 열 가지 비법"이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책은 핵심 주제를 이야기한다. 디테일과 균형, 짧은 문장, 생각의 논리, 글의 논리, 기본문형, 겹문장 처리법, 명사형 문장, 동사형 문장 등 위주로 구성돼 있다.

또한 각 장의 말미에는 실례체크를 수록해 직접 학습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초보자는 물론 글쓰기를 가르치는 교사, 좋은 글을 쓰기 위해 고심하는 이들을 위한 유용한 길잡이가 될 것 같다.

<들녘·2만2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사랑의 꿈

손보미 지음

손보미 작가가 '우아한 밤과 고양이를' 이후 5년만에 신작 소설집 '사랑의 꿈'을 펴냈다. 책에 실린 다섯 편의 연작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십대 여자 아이'이다.

문학평론가 강지희는 그 주인공들에 대해 "초월적인 광기와 공포에 집어삼켜지는 대신, 광기와 공포로부터 거짓말이라는 위대한 유산을 상속받은 영민한 소녀들"이라고 썼다. 또 "소녀들의 에너지 속에서 사랑은 소용돌이치며 거듭 탄생한다"고 덧붙였다.

소녀들은 어른들은 모르는 비밀스러운 공모부터 첫사랑의 시작까지 다양한 이야기 속 주인공이 되고, 작가는 "연약하지만 다채롭고 위태롭지만 맹렬한 세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들의 삶을 보여준다.

2022년 이상문학상 수상작인 '불장난'의 등장인물은 열 두살의 '나'다. 아버지의 재혼으로 달라진 새 가족에 적응하는 것과 같은 반 아이 '양우정'을 둘러싼 소문의 정체를 파악하는 것이 지성최대의 과제인 '나'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밤이 지나면'은 열 살의 여자아이 '나'가 외삼촌 부부네 집에 맡겨진 첫 해의 일을 그린다. '유별난 애'에서 "감정을 표출하지 않는 아이"라고 불린 주인공의 이야기를 따라간다. '첫사랑'과 '이사'는 과의 선생이라는 타인과의 강렬한 만남으로 인해 일어나는 변화를 그린 작품으로 '첫사랑'에는 군 입대를 앞둔 명문대 남학생이, '이사'에는 주인공과 몇 살 차이 나지 않는 중학생 언니가 과외선생으로 등장한다.

소설집에서 유일하게 삼인칭 시점으로 전개되는 표제작 '사랑의 꿈'은 아이를 떠나 도망칠 기회를 얻고 싶었던 한 여자의 충동적인 겨울밤을 둘러싼 이야기가 펼쳐진다.

<문학동네·1만 65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튼튼한 지키자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